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중국 창업 NEWS

- ▶ 알리바바 글로벌 '혁신력'기업 10 강 진입, 유일한 중국기업!(신화왕, 2018.12.26)
- ▶ 쉐컴벤처스 성적표: 10 개 유니콘 육성, 중국에서 40 개 넘는 기업에 투자해(소후, 2018.12.26)
- ▶ 바이두, 허위 정보 유포로 상업저해 판결 받아(소후, 2018.12.27)
- ▶ 2018 년 키워드 '공유교통', 시장은 비관적이지만 여전히 가망 있어(이오왕, 2018.12.27)

중국 전문가 ISSUE

- ▶ 5G 일보 (2018.12.24-2018.12.28) – KIC 중국 제공
- ▶ Content & Ent. (2018.12.31) – SV Investment 제공
- ▶ Robot & AI (2018.12.31) – SV Investment 제공
- ▶ BIO & Healthcare (2018.12.31) – SV Investment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2018.12.28)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60) (2019.1.1) – 윤형건 교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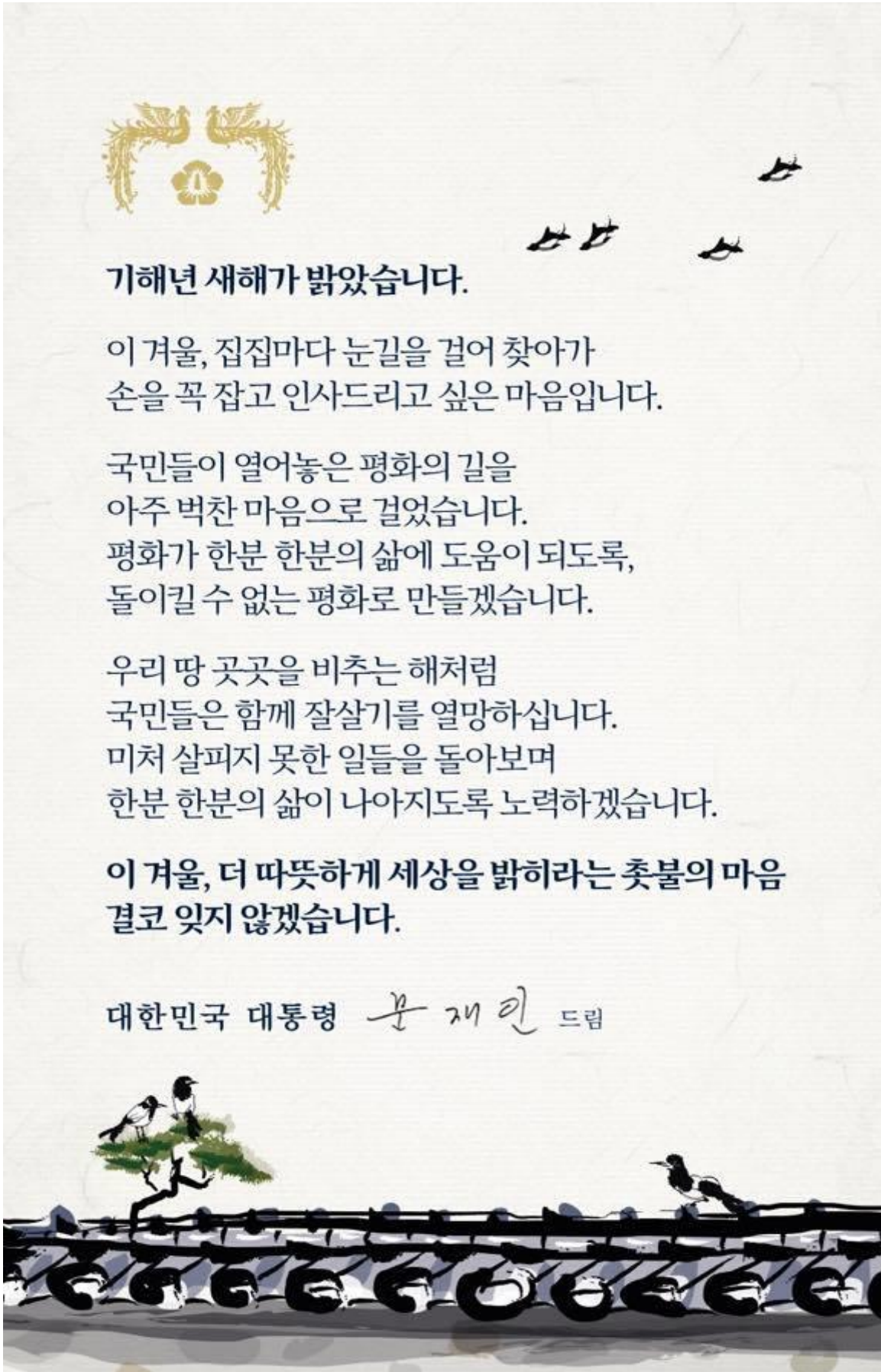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중국경제, 12월은 7개월 연속 감속(Bloomberg, 2018.12.28)
- ▶ '중국미디어의 10대뉴스', 수입박람회 등(nnA, 2018.12.28)
- ▶ ASEAN 각국 중국 멀어지기 가속, 2019년을 내다보다!(동남아시아)(제팬인대프, 2018.12.28)
- ▶ 일중평화후호조약 40년 일중관계의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다(AERAdot., 2018.12.28)
- ▶ 얼굴인식으로「티켓레스」관광버스 등장... 중국·상해시(Forbes, 2018.12.28)

KIC중국 NEWS

- ▶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한국 4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주요 기관 방문(2018.12.28)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겨울, 집집마다 눈길을 걸어 찾아가
손을 꼭 잡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열어놓은 평화의 길을
아주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하십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겨울,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려는 촛불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드림

《유영민 과기부장관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여러분! 2018 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온 나라에 희망의 기운이 넘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 속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열망이 모여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이끌어 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7 월 새롭게 출범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4 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심 없이 달려 왔습니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40 년까지의 장기비전에 기반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신진연구인력, 학생연구원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4 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고 「4 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인 4 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체계와 추진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생활주변 범죄예방과 같이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상향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7 년이 새롭게 뛰기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2018 년부터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3%대 경제성장, 소득 3 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서 '과학기술·ICT 를 통한 사람 중심의 4 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R&D 투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산·학·연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기술-산업-사회의 혁신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긴 호흡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꾸준히 투자하고, 창의성과 융합적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앞 다투어 진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를 구축하여 전 산업과 사회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의 구축·활용을 촉진하고 세계최초 5G 상용화 등 초연결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화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4 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13 대 혁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조기에 상용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진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넷째, 과학기술과 ICT 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고품질·저비용의 통신·우정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여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혁신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어서는 패럴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 기회를 빌어 과학기술과 ICT 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뜨겁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직원은 올 한해, 국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을 펴기 위해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 ICT 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면서 국민의 일상에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 년 새해에는 여러분 각자 소망과 꿈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간 중국 창업 NEWS

1.알리바바 글로벌 '혁신력'기업 10 강 진입, 유일한 중국기업! (新华网, 2018.12.26)

최근 일본에서 글로벌 주요 기업의 '혁신력' 순위가 발표되었다. 알리바바는 중국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10 강에 진입했다.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순위는 시가총액 150강 기업과 168개 일본 기업의 재무보고를 분석한 결과이다. 신속한 의사결정 등 혁신을 낳는 '조직력', 기술개발능력을 나타내는 '가치창조력', 혁신의 씨앗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잠재력' 등 3 대 지표로 기업의 혁신력을 종합 평가했다. 10 강에 진입한 다른 기업은 Facebook, 아마존, 구글 모회사 Alphabet, Netflix,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阿里巴巴闯入全球企业创新力十强

排名	企业	国家和地区	行业
1	Facebook	美国	IT
2	亚马逊	美国	IT
3	Alphabet	美国	IT
4	苹果	美国	IT
5	Netflix	美国	通信
6	微软	美国	IT
7	英特尔	美国	电子
8	AT&T	美国	通信
9	阿里巴巴	中国	IT
10	英伟达	美国	电子

《일본경제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혁신력 10 강 기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등 산업과 사회를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여성직원을 적극 등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 기업 중에서 도요타가 11 위로 가장 높았지만 의사결정과 수익창출 측면에서 일본 기업은 다소 부진했다. 또한 일본 기업은 경영혁신의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번 혁신력 순위 평가에서 조직력을 기업혁신의 효율을 결정하는 제일 요소로 감안했다.

알리바바그룹 장용(张勇) CEO는 "앞으로 기업이 시장 변화에 적응하려면 반드시 조직구조 측면에서 근본적인 자아 개혁과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알리바바의 경영파트너 중에는 80 후가 2 명이고 여성이 1/3 이다. 올 9 월까지 관리자와 핵심 기술인원 중에서 80 후가 80%를 차지했다.

《일본경제신문》은 혁신력 최강의 기업은 모두 속도를 중요시하며 작은 보폭으로 빨리 달리는 식의 순환능력을 형성했고 시장반응에 따라 신속히 개선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알리바바는 여러 기술영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동시에 연구성과를 신속히 상용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글로벌 브랜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보편적 혜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알리바바의 기술체계와 비즈니스를 서로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강력한 조혈능력을 형성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기술로 미래를 맞이하고 미래 및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향후 3 년 동안 달마원(達摩院)에 1000 억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7 년 10 월에 설립한 달마원은 불과 1 년 만에 무려 20 회의 국제 정상급 기술경연대회 1 등상을 취득했다. 5 월에는 달마원 양자실험실이 양자회로 시뮬레이터인 '타이장'(太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9 월에는 핑터우거(平头哥)반도체유한공사를 설립해 클라우드서비스 일체화를 위한 반도체사업에 진출했다. 달마원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전자상거래 AI 번역플랫폼은 이미 쉐이통(alixpress, 速卖通), Lazada 등 플랫폼에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 평균 통역횟수는 7 억 5 천만회에 달했고 텐마오(天猫) 11.11 기간의 최고 횟수는 10 억회를 초과했다.

알리바바는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미 트렌드를 이끄는 능력을 구비했다. 뉴리테일,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결제, 스마트 물류 등 알리바바가 최초로 모색 및 투자한 분야는 이미 전 세계 상업 및 사

회 발전의 방향으로 되었다. 2018년부터 알리바바는 R&D 투자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뉴리테일 생태계를 조성했고 비즈니스 운영시스템은 수천만 중소기업에게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장용 CEO는 “5년, 10년 후의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선도우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함과 동시에 새로운 영역에서 추월의 기회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알리바바의 발전은 오직 기술과 비즈니스의 결합만이 기술적인 불가능을 현실로 실현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의 혁신력은 R&D에 대한 투자와 긴밀히 연관된다. 최근 프라이드워커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의 《2018 글로벌 혁신기업 1000강》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알리바바의 R&D 지출은 연속 3년 동안 중국 상장기업 중의 1위를 기록했다.

2. 퀴컴벤처스 성적표: 10 개 유니콘 육성, 중국에서 40 개 넘는 기업에

투자해(搜狐, 2018.12.26)

최근에 진행한 퀴컴벤처스의 미디어미팅에서, 퀴컴벤처스 선진(沈劲) 글로벌 부총재 겸 창투 상무이사는 지난 8 년 동안 퀴컴벤처스는 샤오미(小米), 모바이(摩拜), 브라질 차량공유업체 99(前 99 Taxi), 자율주행자동차 Cruise 를 비롯한 시가총액 10 억달러 이상인 유니콘을 10 개 육성했다고 밝혔다. 2018 년에는 퀴컴벤처스가 투자한 추바오(触宝), 샤오미, 모바이는 상장에 성공했거나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되었다.

퀴컴벤처스 성적표: 10 개 유니콘 육성

퀴컴 사는 2000 년에 설립한 퀴컴벤처스의 콘셉트를 모바일 혁신의 가속화로 규정했다. 퀴컴반도체는 향후 1~2 년 내의 선도기술에 주력하고 퀴컴벤처스는 향후 3~5 년의 혁신기술을 타깃으로 했다. 지금까지 퀴컴벤처스는 7 개 국가에 지사를 설립하고 150 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중국기업은 40 개 이상이다. 전체 투자액은 10 억달러를 초과했다.

투자단계에 관해 선진 부총재는 "퀴컴벤처스는 해당 분야의 발전잠재력을 기준으로 투자를 진행하는데 기업의 A 라운드, B 라운드, C 라운드 그리고 엔젤라운드 공모에 참여한다"면서 "우리는 창업회사와 10 년 심지어 더 긴 시간을 함께 달리길 원하며 기업의 소액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관리, 기업업무 등 측면에서 기업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 동안 퀴컴벤처스는 모바이, 샤오미, Ring, fitbit 를 비롯한 유니콘 기업을 10 개 육성하고 퇴출에 성공했다. 그 중, 올 해 인수합병 된 중국기업은 모바이, 홍콩증시에 상장한 샤오미, 왕친(网秦), 중커창다(中科创达)이다.



퀴컴벤처스는 투자프로젝트를 고찰할 때 통상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감안한다.

첫째. 퀴컴 투자에 외부의 혁신 정보와 시각을 도입해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는다

둘째. 퀴컴벤처스의 전략목표에 부합하고 퀴컴과 업무적 연관성이 높다.

셋째. 퀴컴벤처스의 투자는 항상 특정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예전에는 3G 혹은 4G 생태계이고 지금은 5G 생태계와 사물인터넷 생태계이다. 목적은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넷째. 양호한 투자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퀄컴벤처스는 창업기업에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외에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조력한다. 첫째: 전문 노하우. 모바일 컴퓨팅 및 연결 영역에서 수년간 누적한 전문 노하우를 창업기업과 공유한다.

둘째: 퀄컴벤처스의 산업자원. 운영업체, OEM 업체, 기술전문가, 투자자를 포함한 협력파트너를 투자대상기업에 연결해 더 좋은 기회와 플랫폼을 마련해준다.

셋째: 퀄컴벤처스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노리는 중국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5G+AI 동력부여의 8 대 응용환경

2019 년은 5G 상용화의 원년이다. 5G 와 4G 는 상용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4G 상용화는 나라별, 통신업체별, 단말기 제조업체별로 각자 전개된 것과 반대로 5G 상용화는 중국, 미국, 한국, 유럽, 일본, 호주의 20 개 통신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일치성때문에 5G 는 고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20 여개 단말기 제조업체는 이미 5G 휴대폰과 단말기의 출시계획을 발표했다.



선진 부총재의 소개에 의하면 퀄컴벤처스는 향후 5G+AI 동력부여의 8 대 응용환경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저지연성 연동게임. 이런 게임은 대용량의 게임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할 필요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비디오 스트리밍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지연성의 특성때문에 여러 이용자들사이의 연동이 가능하다.

둘째: 분포식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실현하는 모바일 XR (확장현실). XR 는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MR (혼합현실) 을 포함한다. 분포식 클라우드 컴퓨팅방식으로 인해 휴대용 XR 단말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5G+AI 는 XR 이 발전하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위지웁(WYSIWYG)식 즉시 클라우드 접속.

넷째: 즉시 반응이 가능한 스마트교통. 5G 통신과 인공지능은 스마트교통과 자율주행이 필요한 즉시 반응의 환경을 지원한다. 여기에 도로교통 뿐 아니라 공장현장의 응용환경도 포함한다.

다섯째: 로컬 인터랙션의 콘텐츠는 완전히 새로운 체험을 가져온다.

여섯째: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의 엷지센서. 5G+AI 는 단말기 측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카메라를 비롯한 엷지센서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송할 필요 없이 로컬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일곱째: 초저지연성의 유연생산시스템. 유연생산시스템은 로봇, 인원, 자원, 기능이 어느 한 고정적인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임무 혹은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히 조정 가능한 동적인 시스템이다.

여덟째: 차별화 가상보조원. 소비자는 휴대폰, 스마트 스피커 등 각종 단말기를 통해 자신의 기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가상 보조원과 연동할 수 있다.

상기 8 대 응용환경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점이 있다.

첫째: 몰입식, 즉시적, 차별화, 프라이버시 보호의 체험을 제공한다.

둘째: 컴퓨팅성능은 클라우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각 노드에 분포된다. 따라서 신규 산업을 생성하고 기존 산업을 변혁한다.

셋째: 단말기 성능은 무선 엣지설비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상호 보완한다.

현재 융자난, 공모난의 환경에 관해서 선진 부총재는 “창투사로서 웰컴이 받는 계절적 변화는 가장 작다”고 말했다. 우선 웰컴벤처스의 투자금은 공모가 아닌 자체의 자금비축이다. 다음으로 웰컴벤처스가 주목하고 있는 4개 분야는 모두 성장 중이다. 5G의 붐이 일고 AI 펀드가 설립되면서 시장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웰컴벤처스는 내년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3.바이두, 허위 정보 유포로 상업저해 판결 받아(搜狐, 2018.12.27)



최근 베이징시 하이톈(海淀)구 인민법원은 경쟁사를 폄훼하고 경쟁우위와 부정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오도(誤導)성 보도를 날조, 배포, 전파한 바이두(百度)회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바이두는 원고 진르터우타오(今日頭條)에 대한 침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25 만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진르터우타오의 기소장에 의하면 바이두가 올해 6월부터 바이두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앱에 《자해공갈에 관중까지, 제 2 차 '3Q'대전을 발동한 진르터우타오》라는 특집보도를 개설하고 하부에 '자해공갈·관중', '데자뷰', '이량(李亮)이 왔다', '동기폭로' 등 5 개 칼럼을 편성해 각 칼럼마다 2~3 편씩 모두 14 편의 문장을 게재했다.

진르터우타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는 동업경영자로서 바이두가 이 특집보도를 편성하는 것은 《반(反)부정당 경쟁법》 제 11 조 “경영자는 거짓 혹은 오도성 정보를 날조, 전파해 경쟁상대의 상업신용과 상품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상기 규정에 따라 경영자는 타인의 제품, 서비스 혹은 기타 경영활동에 대해 평론 혹은 비평할 수 있지만 평론 혹은 비평은 반드시 정당한 목적을 전제로 해야 하고 반드시 객관성, 진실성, 공정성, 중립성을 지켜야 하되 공중을 오도하고 경쟁상대의 상업신용과 상품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바이두가 타인을 조직 및 사주해 거짓·오도성 보도를 날조, 배포, 전파하는 동시에 자체의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 특집보도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 주관적으로 확실한 고의성과 명확한 목적성이 있다. 바이두가 진르터우타오 관련 거짓보도를 날조, 유포, 전파하는 행위는 한편으로 공중 특히는 온라인 이용자를 오도하면서 진르터우타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구독에 영향을 주고 진르터우타오의 시장경쟁력을 약화했다. 다른 한편으로 바이두는 진르터우타오를 폄훼하는 방식으로 자체의 제품·서비스 우위를 강화하고 인터넷시장의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경쟁우위와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진르터우타오는 바이두의 상기 행위가 진르터우타오의 상업신용과 상품명예에 막대한 손해를 조성한 바 상업 폄훼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르터우타오는 바이두가 거짓·오도성 보도를 날조, 유포, 전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바이두 측은 “바이두와 진르터우타오는 경쟁관계가 아니며 해당 보도는 객관적으로 고의성이 없다”면서 “어떠한 편파적인 관점을 주동적으로 표달하지 않았고 모두 인공지능이 정리한 정보”라고 항변했다. 바이두 측은 또 “진르터우타오는 비평을 용인하는 의무가 있으며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평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바이두와 진르터우타오의 경쟁관계를 인정하고 해당 특집보도에 거짓 및 오도성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특집보도의 제목, 머릿말, 하부 칼럼의 제목, 보도내용에서 볼 때 모두 진르터우타오에 부정적인 평판을 유도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상기 행위에 다음과 같이 최종 판단했다. 바이두가 해당 상업언론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불공정 경쟁의 의도가 존재하고 진르터우타오의 상품명예와 상업신용을 침해한 바 상업저해행위를 구성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바이두는 해당 특집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바이두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첫페이지의 최상 위치에 연속 7 일 동안 공개 성명을 발표해 초래한 악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진르터우타오에 25 만위안의 손해배상과 2 만 5600 위안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사건은 정보취합플랫폼이 특집보도의 형식으로 공중에 경쟁상대의 부정적 정보를 전파함으로 발생한 최초의 소송건이다.

4.2018 년 키워드 '공유교통', 시장은 비관적이지만 여전히 가망 있어

([亿欧网](#), 2018.12.27)

1 조에 달하는 공유교통(出行) 시장이 초유의 난관에 부딪혔다. 부정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용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체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비관론은 공유경제를 사지에 몰아넣었다.

최근 ofo 노랑자전거(小黄车)의 보증금 환불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다이웨이(戴威)는 자웨이팅(贾跃亭)의 뒤를 이어 신용불량자명단에 올랐다. 이외 하오슝디(好兄弟), 투거(途歌) 공유자동차도 보증금 문제로 수렁에 빠졌다. 투거의 수많은 고객은 본사까지 찾아가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일부 납품업체도 현장에 현수막까지 걸며 채무이행을 촉구했다. 이렇게 공유교통시장은 험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2018 년이 끝날 무렵 지난 1 년 동안 시장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8 년 초 모바이(摩拜)와 ofo 는 치열한 용자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그 때부터 기업들은 이미 용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두 업체가 합병할 것이란 소식이 계속 흘러나왔다. 그 와중에서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 4 월에 메이툰(美团)이 27 억달러로 모바이를 인수하면서 ofo 노랑자전거의 명운이 업계의 관심사로 되고 말았다. 그 후부터 한동안 ofo 가 디디(滴滴), 알리바바와 인수문제를 논의한다는 소문이 빈번히 나타났지만 곧바로 일축되었다. 이렇게 노랑자전거는 이미 아슬아슬한 경지까지 굴러왔다.

공유자전거시장과 달리 온라인 콜택시시장의 주요 문제는 안전문제이다. 순풍(顺风)차 범죄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후 안전문제는 다시 공중의 시선으로 들어왔다.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출범하면서 온라인 콜택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나섰다. 그러나 연말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자동차업체들은 너나 없이 온라인 콜택시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수익문제는 공유자동차업체 최대의 관심사이다. 기업은 고가 재산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고 오직 용자를 통해 생존이 가능하다. 게다가 자본시장은 공공 얼어붙었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이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라운드의 폐업 도미노현상이 나타났다.

사실 공유교통은 줄곧 메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 자동차기술이 발전하고 공유경제란 대세 속에서 공유업체들은 다양한 신형 비즈니스모델을 모색했다. 물론 공유교통은 발전과정에서 허다한 문제점을 나타냈지만 도시교통효율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롤랜드버거(roland berger)의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공유교통서비스는 연간 17억 7천만 예약건수를 기록했고 55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34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매우 우수한 성적표를 내놓았다.

이외 시장환경 측면에서 볼 때 향후 5년 중국 자동차공유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다. 롤랜드버거 통계데이터에 의하면 중국 공유교통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세계 평균 속도를 잇도는 수준이다.

요즘 2018년을 총결산하고 2019년을 전망하는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불확정성'이란 단어가 2019년의 대명사로 등장할 만큼 비관론이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 및 금융학 교수 쉬샤오넨(許小年)은 "2019년에 불확정성이 있을 것은 없고 거대한 '회색 코뿔소'(gray rhino)가 바로 저기에 웅크리고 있다"며 다른 관점을 내비쳤다. 공유교통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 두 업체가 도산했다고 전체 시장을 '사형'에 언도하면 안된다. 미래의 공유교통시장은 여전히 밝은 편이다.

이어우(亿欧)는 미래의 공유교통시장을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1. 소비주체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80 후는 중국 인터넷시장의 중견역량이고 뒤를 이은 90 후는 새로운 라운드 소비업그레이드의 중요한 구동력이다. 공유교통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모든 이의 상상을 초월했다. 온라인 전용차(专车), 렌터카 등 자동차 공유서비스는 점점 더 많은 젊은층들의 습관으로 되었고 이런 추세는 중국의 출행시장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이외 젊은층들은 신형사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때마다 쉽게 시도해 본다.

2. 정책은 엄격해진다.

공유교통시장의 발전에 따라 각종 문제점도 날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출행시장을 관리·감독하고 표준화·지능화·친환경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을 제정했다. 온라인 콜택시를 예로 들자면 범죄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정부는 각 온라인 콜택시 플랫폼에 간여하고 지도의견을 내는 등 온라인 콜택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공유교통시장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관리·감독역할을 발휘하면서 시장은 건전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역경을 이겨내는 기업만이 생존한다.

수많은 기업에게 말하면 2018년은 어려운 한 해였다. 자본시장은 계속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고 기업경영은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유교통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였다. 불황 속에서 기업은 오로지 내부 노력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운영효율을 향상해야 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업계에 미약한 힘이라도 보탬 수 있다.

비록 2018년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감하지만 2019년은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

5G 일보 (2018.12.24-2018.12.28)

5G 위챗 공식계정은 5G, IoT, IoV(Internet of Vehicles)를 보도하는 신매체플랫폼입니다. 본 자료는 5G 위챗 공식계정에 올라온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5G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info@kicchina.org로 문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계 최초의 '5G 로봇' 카페 오픈!(5G, 2018.12.26)

12월 25일, KT는 세계 최초의 5G 로봇 카페 '비트(b:eat)'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빌딩에서 공식적으로 개장했다고 밝혔다.



커피 전문 브랜드 "달콤 커피" 산하 "5G 로봇" 카페로, KT의 5G 무선기술을 사용하여, 바리스타 로봇이 주문을 받고 커피를 제조한다. 5G 위챗 공식계정(ID:angmobile)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5G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로봇의 상태 정보와 커피, 우유 등 재료의 원산지, 유통기한,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 사진 참고)

KT는 이 로봇에 음성인식, 인공지능 등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12월 1일, KT는 5G 상업용 네트워크를 정식 발표하였으며,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의 인공지능 도우미 로봇에 처음으로 사용됐다.

2. 국내 최초 '5G 드론+교통관리' 네트워크 구축! (5G, 2018.12.26)

12월 26일, 차이나 모바일(中国移动)은 텐진(天津)에서 국내 최초의 5G 드론 교통관리용 시범사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완성했으며 화웨이와 협력하여 텐진에코시티(中新生态城)에 5G 상업 기지국을 여러 개 개설, 중신대로(中心大道) 일부 지역을 커버했다고 전했다.

차이나 모바일(텐진) 관계자는 "5G 네트워크 초고속 광대역, 높은 신뢰도의 저지연성 및 다중 상호 연결(Mass Interconnect) 등의 특성에 힘입어, 5G CPE 단말기, 4K 고화질 카메라, 확성기, 서치라이트 등을 달아 드론의 저지연성 원격 제어, 실시간 초고화질 이미지 전송, 정확한 위치측정, 현재 상황 모니터링, 안전 위험 관리 등의 조작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촬영한 고화질 화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통제실 플랫폼에 전송하여,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법규 위반 촬영, 교통기초시설 순찰 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통제실 플랫폼에서도 5G 네트워크를 통해 드론 및 부착 장비를 원격 조종해서 교통체증, 교통사고와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시 가장 먼저 드론을 보내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확성기를 통해 교통정리 및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2차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효율적이며 신속, 정확한 스마트 교통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차이나 모바일(텐진), 텐진에코시티 관리위원회, 텐진에코시티 투자회사에서 공동 제작한 국내 최초 5G 드론 교통관리사업 시범 운영 공사도 텐진에코시티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5G 공식계정(ID:angmobile)에 따르면, 앞으로 5G 드론에 가시광 영상과 열 화상 카메라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수집 장비를 탑재하여 더 많은 업무에 사용 할 예정이다.

국가 5G 주파수 배분 방안이 마련되면서 차이나 모바일(텐진)의 5G 네트워크의 발전은 네트워크 시험지와 업무시연의 기초단계에서 이미 대규모 네트워크 조성과 전반적인 업무응용 시범단계로 전환, 5G 네트워크 정식 상용에 한발짝 더 나아갔다. 차이나 모바일(텐진)은 앞으로도 5G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텐진에코시티와 협력하여, 5G 인프라 환경 조성, 더 많은 5G 기반의 새로운 응용, 신기술을 개척함으로써 5G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3.R&D 투자! 중싱(中兴) “전 세계 TOP100” 진입(5G, 2018.12.27)

유럽위원회(EC)에서 발표한 <2018년 EU산업 R&D 투자 순위>에 따르면, 중싱(中兴)은 R&D 투자액 18억 유로로 76위며, 중국기업은 6위에 자리매김 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2017 회계 연도 R&D 투자액이 2500만 유로를 넘는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은 미국(35개), 일본과 독일(평균 13개)에 이어 11개 기업이 100위권 안에 들었다.

중싱(中兴)은 줄곧 고강도 R&D 투자를 고수해 왔다. 2018년 3분기 재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R&D 투자액은 85억2600만위안으로, 영업이익의 14.5%를 차지했으며, 이 중 3분기 R&D 투자액은 34억7000만위안으로, 영업이익의 17.9%를 차지했다.

5G 건설의 중요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싱은 “전략 포커싱”을 실시, 주요 업무와 핵심 시장 투입을 강화하고, 5G와 칩(Chip) 등 핵심 기술 개발을 확대해, 주요 제품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가고 있다. 중싱은 2018년 중국 소프트웨어 사업 수입 100대 기업 중 2위에 올랐고, 3년 연속 세계 혁신 기업 100대 기업, 중국 랭킹 3위 안에 올랐다.

본 자료는 SV Investment Shenzhen Office 에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신문, 뉴스, 협회 등의 자료를 번역하여 내부 사용 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장형식 이사(jangform@svinvest.com), 배진희 심사역(jhbae@svinvest.com) 또는 윤이상 심사역(ysyoon@svinves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gatrend Investors(<http://cafe.naver.com/qfiichina>)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문자료 작성: 윤이상 심사역, 번역: 김세연(청화대 경제관리학원)]

Essence Securities – 음원 스트리밍 고성장 기대

1.역사: 텐센트뮤직의 미국 상장, 시총 1500 억 위안에 달함

텐센트뮤직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시총은 약 1500 억 위안에 달한다.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 회사로서, 주로 음악 애호가들에게 디지털 음원 플레이어, 온라인 KTV 및 저작권 계약 이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 년 12 월 13 일, 텐센트뮤직(TME.N)이 나스닥에 상장했다.

텐센트뮤직의 이번 신규주식공개(IPO)에서 공개 시장 가격은 13 달러로, 주당 13~15 달러에 8200 만 주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발행해 총 11 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텐센트뮤직의 시가 총액은 약 212 억 달러로, 인민폐로 환산하게 되면 1460 억 위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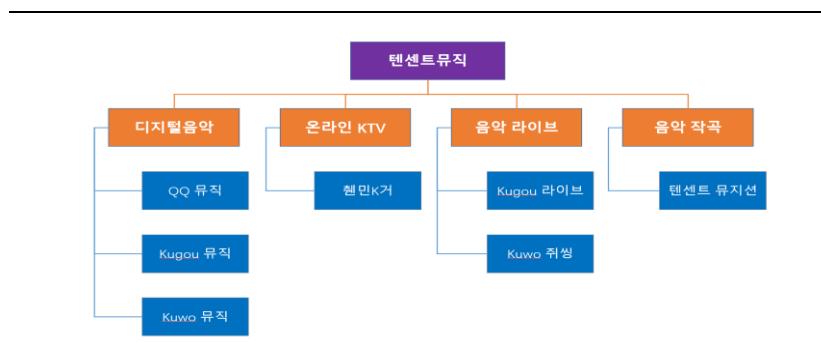
윈드 데이터에 따르면, 텐센트뮤직은 상장 첫날 거래에서 한때 공개 시장 가격에서 7.69% 상승한 주당 14 달러까지 치솟아 시가총액 229 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현재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강자 Spotify의 시가총액과 같다.

텐센트는 텐센트뮤직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투자설명서 공시에 따르면, IPO 이전에 텐센트는 5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9.1%를 보유한 Spotify,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와 중차이(中财)펀드관리회사가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주요 주주이다.

2.사업 구조: 다원화된 수익원, 2017 년 수익 2 억 달러

거대한 온라인 음악사업 규모와 함께 텐센트뮤직은 중국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2016 년 7 월 텐센트는 기존 QQ 뮤직에 차이나뮤직그룹(CMC)를 인수합병해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TME)를 출범시켰다. 현재 텐센트뮤직의 사업 구조는 크게 4 개로 나뉜다: 디지털 음원, 온라인 KTV, 음악 라이브, 음악 작곡.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QQ 뮤직, 쿠위뮤직, 쿠거우뮤직을 포함하고, 라이브 서비스에는 쿠위취싱과 쿠거우 라이브가 있다.

텐센트뮤직 사업 구조



자료: 텐센트뮤직 투자설명서

텐센트뮤직의 수익 구조 또한 다양화되어 있으며, 2017 년의 매출액은 16.81 억 달러였다. 텐센트뮤직의 주요 수익원은 정기 이용권, 디지털 앨범, 가상 캐쉬, 그리고 vip 회원이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17 년 회사의 실제 매출액은 16.81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의 성장했다. 이 중 온라인 음원 매출은 오직 29%이고 약 70%의 수익은 SNS 엔터테인먼트 및 음악 라이브 방송, 온라인 KTV 등 다른 사업에서 창출되었다.

텐센트 뮤직은 Spotify 에 앞서 먼저 수익 창출을 시작하였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텐센트뮤직은 2016 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익 규모도 점점 커져 왔다. 2017 년 모기업에 속하는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2.03 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17% 증가했다. 2018 년 3분기 기준 모기업에 속하는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3.98 억 달러로, 2017 년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전년 동기대비 246% 증가한 수치이다.

영업 현금흐름은 충분하며, 수익률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16 년부터 2018 년 3 분기까지 영업이익 구조가 변하면서, 매출총이익이 28%에서 40%로 상승하고 순이익률은 2%에서 20%로 상승했다. 현금 유입 규모도 상당해서, 2016 년의 1.26 억 달러에서 2018 년 3 분기 기준 5.38 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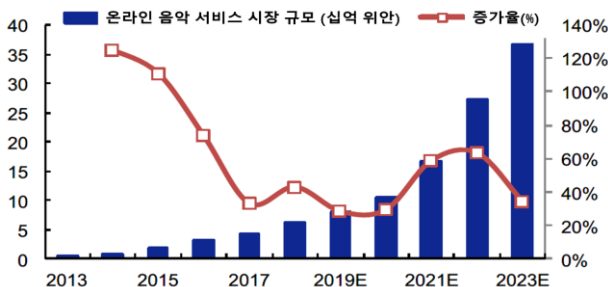
3.시장: 온라인 음악 시장의 수익 창출 루트 다양화, 시장 규모의 고성장 기대

중국 온라인 음악 사업의 수익 창출 모델이 더욱 풍부해졌다. 다양한 소비자 군에 따라 중국 온라인 음악 사업 수익 창출 루트를 2B 와 2C 로 나눌 수 있다. 2B 는 광고 중심으로, IP 인큐베이션, 콘서트, 라이브 3 가지의 모델로 구성되며 제조업자의 협찬이나 발행에 참여해 수익을 분배한다. 2C 는 주로 콘텐츠 유료화, 유료 다운로드, 모바일 데이터, 회원제, 디지털 앨범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라이브, 오프라인 파생상품 구매 등이 있다.

중국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2023 년에 2000 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온라인 음악 팬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주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온라인 KTV, 음악 중심의 라이브, 온라인 광고, 온라인 음악 판권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iResearch 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 년 중국 온라인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330 억 위안이며 2023 년에는 2,152 억 위안으로 늘어나 2017 년부터 2023 년까지의 성장률은 36.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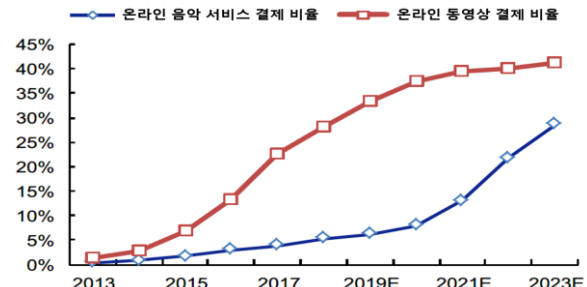
저작권 보호 움직임에 힘입어, 사용자들은 점차 결제 습관을 기르며 결제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13 년에서 2017 년 사이에 중국의 온라인 음악 결제율은 0.4%에서 3.9%로 상승했으며 2023 년에는 28.7%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은 다운로드 유료화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의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음악 플랫폼은 계속해서 유료 미디어 수익 모델을 탐색 중에 있고, 이런 모델은 머지않은 미래에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규모와 증가율



자료 : iResearch

2013-2023E 중국 온라인 음악/동영상 결제 비율



자료 : iResearch

음악 시장에서의 결제는 더욱 풍부해졌고, 온라인 KTV, 음악 SNS, 라이브 등 음악 관련 업계의 사용자 규모는 상당하다. Questmobile 의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 APP 이외에도 사용자들은 라디오, 생방송, 온라인 KTV, 음악 라이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음악을 접하고 있다. 이중 온라인 KTV 의 월 활성 사용자는 1.89 억 명에 달하며 침투율은 17%에 이른다.

온라인 KTV 시장은 중국에서 대중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KTV 는 중국에서 음악을 즐기는 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유행이며 온라인 KTV 서비스는 코어 사용자를 축적했다. 온라인 KTV 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래와 퍼포먼스, 사교를 가능하게 하며, 공통된 음악적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과 퍼포먼스도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 KTV 와 음악 중심의 생방송이 중국에서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고, 사용자 체험, 대규모 실력파 뮤지션들이 지속적으로 “인기 가요”를 만드는데 공헌하고, 플랫폼에서 “소셜 네트워킹”이 제공되어 사용자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모두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이다. iResearch 의 자료에 따르면 2017 년 중국 온라인 KTV 와 음악 라이브 서비스 전체 규모는 약 220 억 위안이며 2023 년에는 1305 억 위안으로 증가해 2017 년부터 2023 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은 34.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자료는 SV Investment Shenzhen Office 에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신문, 뉴스, 협회 등의 자료를 번역하여 내부 사용 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장형식 이사(jangform@svinvest.com), 배진희 심사역(jhbae@svinvest.com) 또는 윤이상 심사역(ysyoon@svinves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gatrend Investors(<http://cafe.naver.com/qfiichina>)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문자료 작성: 윤이상 심사역, 번역: 김세연 (청화대 경제관리학원)]

HUACHUANG SECURITIES – BAT 2B 경쟁 시작

1. 주요 관점

주요 사건

12 월 18 일 바이두 창업자 리엔홍(李彦宏) 회장은 내부발표를 통해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ABC 스마트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스마트 클라우드 사업그룹(ACG)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인공지능 to B 업무와 클라우드 업무를 탑재했다. 이로써 BAT 는 모두 to B 시장을 겨냥한 조직 구조조정을 끝마쳤다.

사건 평론

바이두의 구조조정 발표, AI to B & 클라우드가 금번 조정의 핵심이다. 바이두의 구조조정은 두가지의 주요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 클라우드 사업부(ACU)가 스마트 클라우드 사업그룹(ACG)로 승격되어 AI to B & 클라우드를 동시에 공략한다는 점이다. ACG 는 인스밍(尹世明)이 담당하여 장야친(张亚勤)에게 보고하고, 장야친은 EBG 와 IDG 를 동시에 담당한다. 둘째로, 검색회사 및 BG 의 운송비, 기초 구조 및 집단 공유 플랫폼이 기초기술체계(TG)로 통합되고, 통합된 TG 는 왕하이펑(王海峰)에게 보고되며 왕하이펑이 계속해서 AIG 를 담당한다. 이로써 AI to B 와 클라우드 업무는 바이두 조직의 이번 연이은 구조 조정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To B 시장은 이미 바이두 주요 전략의 일환이다. 바이두는 to b 시장에 있어서 두 가지의 주요한 원동력이 있다. 첫번째는 바이두 클라우드이다. 바이두 클라우드는 2015 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된 바이두의 기술, 능력 수출 플랫폼이다. 2018 년 ABC SUMMIT 에서 바이두의 장야친(张亚勤) 회장은 바이두의 가입자 수와 파트너 수가 모두 지난해의 3 배이고, 유동인구는 지난해의 5 배, 수입은 4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두 클라우드는 농업, 공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겨냥한 3.0 판 ABC 를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3 대 산업 플랫폼을 마련한 것은 바이두 클라우드가 이미 업계에서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번째는 AI 산업이다. 회의에서 바이두는 딥러닝, 대화식 검색, 자연어처리 등 전반적인 AI 능력을 갖춘 AI to B 를 출시하였으며, 신소매, 신제조, 교통, 보안 등 각 영역을 포괄하는 솔루션을 발표하였다. 바이두는 12 월 20 일 AI 와 산업의 심층적 융합을 위한 '바이두 AI 산업 연구센터'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조직의 구조 조정 방향과 바이두의 최근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to B 시장은 이미 바이두의 중요한 전략 방향이 되었다.

BAT 빅 3 의 연이은 조직 구조조정 완료, IT 시대의 전성기를 보여준다. 9 월, 텐센트는 소비 네트워크에서 산업 네트워크로의 전환, 클라우드 및 스마트 산업사업그룹(CSIG)을 신설, to B 사업을 전례 없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전략을 발표하였다. 11 월에는 알리바바가 2015 년에 이어 최대 조직 구조조정을 발표했는데, 알리클라우드 사업그룹은 알리 클라우드 스마트사업그룹으로 승격되어, 그룹 CTO 장젠펑(张建峰)이 회장을 겸하고 있다. 이번 바이두 구조조정은 "ABC 스마트 클라우드"로 업그레이드 할 사업 전략을 주도했고 바이두 with 클라우드를 추진할 목표를 나타낸다. BAT 빅 3 는 지금까지 to B 에

대한 조직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클라우드 전략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 산업의 인터넷 시대로의 도약을 하고 있다.

2.업종 현황

2018 년 상반기 중국 인공지능 분야 용자 317 억 달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12 월 10 일, 공신부 중국신통원 부소장 장쉐리(张雪丽)에 따르면 2018 년 9 월 현재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업이 5,159 개가 있고, 중국은 1,122 개로 2 위를 차지했다. 베이징 소재 인공지능 기업은 445 개로, 전세계 최다 인공지능 기업 도시로 선정되었다. 2018 년 상반기 인공지능 분야의 전세계 용자 규모는 435 억 달러, 중국은 317 억 달러로 전세계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텐센트 클라우드와 후투증권 합작, 홍콩 첫 금융전용 클라우드

[36kr(36 氪)] 12 월 10 일 보도에 따르면 후투증권(Futu Securities)과 텐센트 클라우드, 홍콩텔레콤이 홍콩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3 자 간 심도있는 합작으로 이루어낸 홍콩 최초의 금융 전용 클라우드-후투증권 금융전문 클라우드를 정식 출범했다. 이후 후투증권은 자체 개발한 각종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을 지탱하며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텐센트 클라우드, "IoT 통신 제품" 출시

[바이자하오(百家号)] 12 월 15 일, 텐센트 클라우드에서 주최한 제 1 회 클라우드+커뮤니티 개발자 대회에서 IoT 개발자를 위해 텐센트가 내놓은 "IoT 통신 제품", "일운양단(一雲兩端)" 모델은 텐센트 클라우드를 통해 응용단말기와 설비단말기, 클라우드 플랫폼, 응용프로그램을 결합, 생태계 고리들을 연결하여 각종 IoT 솔루션을 제공한다.

알리바바 첫 미래호텔 "FlyZoo Hotel" 개업

[바이자하오(百家号)] 12 월 17 일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첫 미래호텔 "FlyZoo Hotel"이 12 월 18 일에 항저우 알리바바 단지에 개업한다. "FlyZoo Hotel"은 전 지역 안면인식 서비스와 대규모 AI 스마트서비스를 구현한다. AI 스마트서비스, 디지털화된 운영플랫폼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호텔은 디지털화된 솔루션을 채택하였다.

아이플라이텍, 하얼빈 공업대학과 연합하여 CoQA 신기록 수립

[지치즈신(机器之心)] 12 월 19 일 보도에 따르면, 아이플라이텍과 하얼빈 공업대학 연합 실험실(HFL)이 공동개발한 모델 D-AoA + BERT (single model)을 각각 업데이트했다. 공공 데이터 세트 CoQA 의 질의응답 모델에서 각각 81.4(in-domain), 77.3(out-of-domain), 80.2(overall)의 최고기록을 수립했다. CoQA 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올해 개방한 질의응답형 대형 데이터 세트로, 도전의 목표는 기기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대화 중 나타난 관련 문제에 대한 기기의 대답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AI 스타트업 Versa, 텐센트에 수천만 달러의 A 라운드 투자 유치

[리에원왕(猎云网)] 12 월 19 일, Versa 는 텐센트에게서 수천만 달러의 A 라운드 투자를 받았음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Versa 제품인 마카롱 드래곤(马卡龙玩图)은 애플 앱스토어 올해 상위 App 에 올랐다. 마카롱 드래곤은 개별 스마트 식별 AI 비주얼제작 App 이다. 본 라운드 펀딩 후, 텐센트와 Versa 는 모바일 '누끼따기(배경 지우기)' 발전에 주력할 것이다.

화웨이, 스마트 컴퓨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

[딥테크(DeepTech 深科技)] 12 월 21 일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12 월 21 일부터 화웨이 서버를 스마트 컴퓨팅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연결, 연산, 클라우드의 3 대 사명으로 스마트 컴퓨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웨이 스마트 컴퓨터 대회에서, 화웨이의 스마트컴퓨팅 업무가 정식으로 발표되었고, 연산력, 데이터협력, 산업 응용, 전문기술 4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위해 화웨이 스마트 컴퓨팅 업무는 연산력, 공정, 클라우드/엣지 시너지 및 원스탑 솔루션 4 가지 방안을 놓고 진행되었으며 회의에서 팀 역시 그 노력을 보여주었다.

UBS,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선언: 2019 년 데이터 클라우드 이전

[블룸버그(Bloomberg)] 12 월 13 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과 구글 두 라이벌을 제치고, 취리히와 제네바 지역의 전용 시설에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기로 UBS 그룹과 합의했다. 이번 거래 규모는 수억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며, 2019 년부터 이전이 진행될 것이다. UBS 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공개적으로 추가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 인공 지능 기술로 국가 안보계획 보완

[지치즈신(机器之心)] 12 월 19 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 월 18 년 발표한 일본 미래 십개년 가이드라인에서 국가 안보 지침에 대해 출산율 하락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간과 인터넷 구조에 혁신을 이루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을 개발해 미래 국방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중 언급된 것으로는 무인 항공기 기관으로 지역통제와 공간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핀테크회사 ZestFinance,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 구축

[Geek Park(极客公园)] 12 월 20 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핀테크회사 ZestFinance 와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로 ZestFinance 의 인공지능 톨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금융서비스 고객으로 하여금 쉽게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본 자료는 SV Investment Shenzhen Office 에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신문, 뉴스, 협회 등의 자료를 번역하여 내부 사용 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장형식 이사(jangform@svinvest.com), 배진희 심사역(jhbae@svinvest.com) 또는 윤이상 심사역(ysyoon@svinves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egatrend Investors(<http://cafe.naver.com/qfiichina>)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문자료 작성: 배진희 심사역, 번역: 김태연 (청화대 경제관리학원)]

Shanxi Securities – 제약산업 2019 투자전략

1. 중국 의약위생체제개혁 심화단계 진입, 새로운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지속 출범

현재 경제 하향세 배경 아래, 제약은 국계민생(国计民生, 국가경제와 민생) 산업으로서, 개혁 최전선에 처하게 된다. 최근 2~3 년 제약 분야의 각종 정책이 집약적으로 출범되면서, 창성백신사건(长生疫苗)을 포함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의약위생체제개혁(이하, 의료개혁)이 심화단계로 진입했다. 2016 년의 양표제(两票制), 복제약(仿制药) 일치성 평가와 일련의 혁신장려 정책, 특히 11 월에 국가판입찰정책(国家版采量采购政策)의 시행에 따라 제약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으며, 이런 정책들의 출범은 본격적으로 제약 산업 구조를 재구축하고, 이로 인해 제약산업은 새로운 과도기에 진입했다.

1.1 일치성 평가 단계성 성과 달성, 느린 “289 목록(289 目录)” 진행진도

2016 년 3 월, 국무원판공청은 “복제약 품질 및 약효 일치성 평가 실시에 대한 의견(关于开展仿制药质量和疗效一致性评价的意见)”을 발표하여 중국 복제약 일치성 평가 업무의 정식 시행을 알렸다. 이후 관련 의견과 지도 원칙 등 정책들이 연달아 출범하면서, 추진 사업들이 착실히 운영되고, 일치성 평가 진행을 가속화하였다.

국가정책 요구에 따르면, 화학약품의 신규 등록분류 시행 전 출시된 복제약의 경우, 오리지널 약품과의 품질 및 약효 일치성 평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전부 다시 일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본약품목록(国家基本药物目录, 2012 년 버전) 중 2007 년 10 월 1 일 전에 허가 출시된 고체형 복용 화학약품은 총 289 개로, 2018 년 말까지 일치성 평가를 마쳐야한다. 그 중 유효성 임상실험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품목들이 포함되며, 해당 품목에 대해 2021 년까지 일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긴 경우 재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약회사는 원칙상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BE 시험) 방안을 채용해 일치성 평가를 진행한다. 복제약 일치성 평가 업무는 대조약품 등록부터 최종 비준까지 대략적으로 20-28 개월이 소요되며, 그중 대조약품 확정 및 획득은 1-3 개월, 약학 연구는 6-12 개월, BE 시험은 7 개월 가량, 신고비준은 6 개월 가량 필요하다.

정책 요구에 따르면, 일치성 평가를 통과한 약품 품목은 의료보험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우선적으로 임상에서 사용해야한다. 동일 품목 약품에서 일치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3 곳 이상 될 경우, 약품 집중 구매 시 더이상 일치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약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289 목록”의 일치성 평가 미통과 약품 중, 90%가 넘는 비준 문서는 2020 년에 기한이 만료된다. 만약 해당 품목이 기한 전에 일치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으며, 수만 개의 약품 비준 문서가 사라질 것이다. “289

목록" 품목 일치성 평가의 진도는 현재 오직 19 개 품목에서만 기업이 일치성 평가를 통과하고, 절대다수의 품목에 대해 2018 년 말 예정대로 평가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업계 내 관계자는 약품감독관리총국(药监局)이 일치성 평가 스케줄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국가 입찰 품목은 일치성 평가 통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는 향후 시장 진입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며,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일치성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급선무다.

1.2 양표제가 가져온 제약 산업 집중도 향상

2016 년 4 월 26 일, 국무원은 공문을 정식 발표하며, 의료개혁 시범성(试点省份)에 "양표제"를 추진했다. 2017 년 1 월, 국무원 의료개혁 사무실을 비롯한 팔부위(八部委)는 "공립의료기관 약품 입찰 중 '양표제' 시행 의견(关于在公立医疗机构药品采购中推行"两票制"的实施意见)"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종합 의료개혁 시범성(区, 市)와 공립병원 개혁 시범도시는 우선적으로 "양표제"를 시행하고, 다른 지역에서 "양표제"를 집행하도록 장려하여 2018 년까지 전국적 시행을 목표로 한다.

"양표제"는 제약회사에서 유통회사로 전달될 때 한번 영수증 발급하고, 유통회사에서 의료기관으로 전달될 때 또 한번 영수증을 발급한다.

현재 의약회사는 주로 원가 대리상 모델(底价招商)과 수수료 대리상 모델(佣金招商) 두가지 마케팅 모델이 있다. 원가 대리상 모델은 기업의 모든 마케팅 업무를 대행업체가 위임받아 진행하고, 저가방식(약품 원가 기준)을 통해 영수증 발급해 대행업체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약회사는 생산만을 책임진다. 이런 모델은 회사의 경영 리스크와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수료 대리상 모델은 제약회사가 유통채널을, 대행업체가 판매단을 통제하고, 제약회사는 대행업체의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한다. 본 모델은 고가방식(약품원가보다 높음)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는 자체적으로 판매단 팀을 구성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원가 대리상 모델을 사용하고, 주로 마케팅 업무를 유통업자에게 위임하며, 과표 및 주표(过票, 走票: 원래 정상적인 경영자격이 없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 정당화함)를 통해 돈을 세탁하여, 탈세 또는 납부 누락 문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양표제 시행 후, 대부분의 원가 대리상 모델을 사용한 제약기업은 고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 유통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약품 유통 질서 규범화하고, 약품감독부가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데에 유리하다.

2017 년 의약품 유통 집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 말까지 중국 전역에 총 13,146 개의 의약품 도매 기업이 있으며, 이 수치는 향후 5 년 내에 대략 3,000 개로 줄어들 것으로 업계 관계자가 전망했다. 양표제의 실시는 의약품 유통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대량의 "과표", "주표" 회사 및 중소형 상업회사는 퇴출되거나 전환이 될 것이다. 또한 시장 집중도는 크게 높아지고 높은 신용도, 강력한 규범성, 다운스트림 채널 우세를 지닌 대형 상업회사가 합병통합 기회를 맞을 것이다.

1.3 대량입찰(带量采购)은 제약산업 구조 재구축

2018 년 5 월 31 일, 국가의료보장국(이하 의보국)이 정식으로 설립되고,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인사부(人社部), 위계위(卫计委), 민정부(民政部), 발개위(发改委)의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삼의연동(三医联动)은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2018 년 9 월 11 일, 의보국 주도 하에 시범연합입찰 관련 세미나는 상해에서 열렸으며, 세미나에서 연합입찰 요구 및 세부사항을 소개했다. 그리고 첫번째 대량입찰 목록을 발표하고, 국가판 대량입찰 정책을 공개했다. 뒤이어 11 월 15 일 상해시양광입찰사이트(上海市阳光采购网)는 "4+7 도시 의약품 집중입찰 문서(4+7 城市药品集中采购文件)"를 공표하여, 북경, 천진, 충칭과 심양, 대련, 샤먼, 광저우, 심천, 청두, 시안 등 11 개의 도시를 규정했으며, 31 개의 의약품에 대해 대량입찰을 진행했다. 이는 국가판 대량입찰의 정식 출범을 의미하고, 담판결과는 12 월 6 일에 공개됐다. 11 월 21 일, 상해시양광

입찰사이트는 "4+7 도시 의약품 집중입찰 상해지역 보충문서(4+7 城市药品集中采购上海地区补充文件)"를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단일 품목 낙찰은 의료보험 선지급 등 방식을 포함하고, 이는 기존 제약회사의 판매모델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 중간 단계의 대량 판매비용은 사라지고, 제약회사의 매출총이익율은 대폭 감소하여 복제약은 더이상 이전의 80-90%의 매출총이익율을 유지하지 못한다.

현재 대량입찰은 11 개 도시와 31 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시행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각 지역은 상응하는 세칙을 제시했고, 동시에 현재 복제약의 대량입찰은 일치성 평가를 전제로 했지만 현재 일치성 평가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정책 추진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국가관 집중입찰의 결과로 정부의 약품가격 인하 의지는 여전히 매우 간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목적은 경쟁 촉진을 통해 국산 복제약의 수입품 대체와 제약회사의 업그레йд 전환을 추진한다. 동시에 공립병원 개혁을 심화하고, 의약품 판매비용 배척을 통해 "대금판매" 모델을 변화시켜, 최종적으로 의료보험 자금의 사용효율이 상승하며 시민의 보장 수준을 향상시킨다.

2.투자 전략

산업사슬 시각에서 제약산업 투자기회 발굴

의료보험은 최대 지불처로서, 특히 의보국 설립과 대량입찰 등의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업계 내 모든 참여자들의 행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병원 자체가 비교적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 의보국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병원이 업스트림 기업을 압도하는 발언권을 장악하고, 상위 공업, 상업, 의료보험, 환자 등 각 측의 경쟁으로 업스트림은 약세에 처해있다. 전체 제약산업의 가격 인하 추세는 막을 수 없다.

산업 추세 측면에서 공업단(일치성 평가)과 상업단(양표제) 또는 단말(의료보험의 대량입찰)에 관계없이 향후 집중도가 뚜렷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1. 중국 정부 블록체인 순위 EOS 7 개월 연속 1 위(블록미디어, 2018.12.24)

중국 정부 당국이 매달 선정하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 순위에서 12 월에도 EOS 와 이더리움이 여전히 선두권을 지켰다고 24 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 전기정보산업개발국(CCID)이 최근 발표한 '세계 퍼블릭체인 기술 평가 지수' 순위에서 EOS 가 1 위를 차지했다. EOS 는 지난 6 월부터 수위를 지키고 있다.

2 위는 지난 5 월 첫 조사에서 1 위를 한 후 계속 2 위를 지켜왔던 이더리움이 이번 달에도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8 월에 처음 10 위로 10 위권에 이름을 올린 후 9 월 16 위, 10 월 19 위에서 11 월 13 위로 몇 계단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12 월 다시 18 위로 밀려났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 월부터 이 조사를 시작했다.

CCID 측은 이번 달부터 조사 대상 암호화폐 수를 33 개에서 34 개로 늘렸다면, 높은 성능과 일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지원이 우수한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 GXChain 블록 생산 능력 트러스트노드로 공식이관, 탈중앙화의 시작 (블록타임즈, 2018.12.26)

GXChain 은 지난 19 일 19 시 41 분(중국 베이징 현지시간) 보호 노드 를 제거하고 블록 생산 능력을 투표로 통해 커뮤니티가 선정한 21 개의 트러스트노드로 공식 이관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식 이관을 통해 GXchain은 공동체 관리의 지휘체계의 시작을 알렸다. 지배구조를 넘긴 후 첫 번째 블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록체인 보안 기관인 CertiK 에 의해 운영되는 CertiK-gxc 노드에 의해 생산된다.

중국의 3 대 체인인 GXchain 은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CCID(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의 2018 년 세계블록체인 기술 평가에서 세계 4 위를 기록했다.

현재 200 여 개의 금융기업과 협업 중이다. 전통금융 기업, 인터넷 금융기업에 DES(데이터 암호화 표준)을 서비스 중이며 세계최초의 기업형 상품이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GXchain 은 block city 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DApp 을 운영 중이다. 220 만 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갖고 있다. 일일 사용 유저는 45 만 명 정도이다. 프로핏(Prophet), 코인갯(Coinget), 랜드체인(Land Chain) 등이 GXchain 의 플랫폼과 함께하고 있다.

그 중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임대 거래를 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루시아(Lucia)는 임차인의 신용기록, 건물의 상태 등을 블록체인화하여 관리한다. Lucia 는 중국 관영매체 CCTV 에도 보도됐다.

GXchain 의 GID(General Digital Identity)기술은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과 구별되는 핵심 기술이다.

유저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관리/편집할 수 있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 가능하다.

본인이 설정한다면 다른 유저가 자신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도 할 수 있다. 수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수 많은 유저와 GID 라는 정보는 다양한 DApp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GXChain 의 블록 생산 능력 이관은 블록체인 업계와 GXChain 커뮤니티 발전에 동참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GXChain 은 블록체인을 통해 공동체의 노력과 합의를 구체화했다. GXChain 의 이런 행보는 탈중앙화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3.중국서 쇠고기 이력 블록체인으로 추적하는 스테이크 매장 개업(지디넷, 2018.12.27)

중국에서 블록체인으로 쇠고기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스테이크 전문 정육 식당이 문을 열었다.

중국 언론 화롄판마왕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상하이 푸둥신구 루자쥐에 위치한 이 '이젠센뉴' 스테이크 체험 매장에서 중국 최초로 스테이크에 사용되는 쇠고기의 번식, 사육, 운송, 도살, 가공,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로 추적 가능하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쇠고기 이력 추적에 적용키로 한 가운데 상하이에서 이같은 시도가 이뤄진 것이다.

이 매장은 상하이 젠위에전자상무유한회사가 운영하는 일본풍 신선육 스테이크 식당이다. 블록체인 매장 개업 첫날인 23 일 점심 매출액이 1 만 여 위안(약 163 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장의 쇠고기 원재료는 모두 호주 천연 목장에서 키워진 순종 앵거스 품종이다. 1 천 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알칼리성 토지에 무농약과 화학비료 최소화 등을 통해 소를 사육한다.

호주 농장에서 정보 추적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쇠고기의 DNA 와 가족력 정보도 관리된다. 사육 과정에서 환경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귀표 시스템 등도 운영되며 소의 사료 정보와 생장 정보가 모두 기록된다. 엄격한 검역 과정을 거쳐 중국으로 운송되는 전 과정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운영된다.

중국 언론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중국인의 식탁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쇠고기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젠위에전자상무유한회사는 상하이 매장을 시초로 향후 중국 내 다른 도시에도 이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60) (2019.1.1)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을 열며, 신년 특집-사장님 안목

필자가 모 회사를 위하여 칼집을 디자인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주로 OEM 형식 및 자사 브랜드로 해외 시장에 판매하였다. 금융위기로 갑자기 수출이 80%가 격감하였다. 자구책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진출 위해 그들의 핵심 기술과 설비로 신제품을 만들기로 하였고, 중국 시장이기에 중국을 잘 알며 경험과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하였다. 필자는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하였다.

주방에서는 칼을 사용한 후 보관을 한다. 중국인들은 칼을 사용한 후, 어디에 보관을 하는지 궁금하여 일반 중국 가정집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칼과 칼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칼을 사용 후에는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남경의 한 중국 가정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께서 출산을 한 딸과 사위, 그리고 부인을 위하여 스스로 조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같으면 할머니 혹은 딸이 할 텐데 역시 중국은 다르다.

중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요리는 재료를 잘 씻고 칼로 다듬고 각종 양념으로 조리한다. 칼 없는 주방은 없다. 중국은 중국만의 칼 폭이 넓은 칼이 있다. 이 칼로 중국인들은 각종 요리를 한다. 요즘은 이런 칼과 더불어 다양한 칼을 사용하고 있다. 조리를 마치고 칼 수납을 관찰하여보니 불편한 점이 여러 군데 있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미 익숙하여져 이것이 불편인지 모르고 있었다.

고대부터 칼날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집이 있었다. 가정용 칼도 칼 날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칼집이 있었지만, 모양은 예전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주방에서 통상 한 시간 정도 서서 일을 한다. 일을 마치면 칼을 씻어 다시 칼집에 넣는다. 당시 칼집은 나무 덩어리에 조그만 틈새에 칼을 맞춰 넣었다. 신경을 써서 틈새에 집어넣어야 한다. 편하게 넣으면 좋겠는데 잘 맞춰 넣어야 한다. 얼마나 귀찮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귀찮은 일은 하기 싫다. 더 편한 방법을 있을 것 같은데 예전부터 그래왔어서 어쩔 수 없어하며 '문화적 습관'으로 당연시한다.



(필자가 제안한 신 개념의 칼집 디자인안의 간이 모형)

필자는 현장에서 문제점과 직접 경험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적 사고를 하고 또 하였다. 팀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점점 아이디어를 업해 가면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 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하였다. 그런 중 책꽂이에 책이 꽂혀있는 모양을 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쉽게 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간단한 재료로 모형을 만들어 보았다. 기존의 제작보다도 훨씬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 있었다. 세상에 수 많은 주방 회사에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토론 조사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타성적으로 디자인하면 표면적인 범주를 벗어 날 수가 없다.



(필자가 제안한 신 개념의 칼집 디자인안)

깔끔하게 디자인을 한 후, 파트너십 회사의 사장님과 미팅을 하였다. 그는 70 정도의 고령의 대만인이었다. 필자는 자신만만하게 디자인을 보여주며 확신차게 이런 디자인이 좋다고 하였다. 당연히 사장님도 맛장구를 쳐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은 중국 시장에서 안 팔린다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필자는 혁신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당신 회사 브랜드와 매출을 한 번에 올려줄 수 있다고 강조를 하였지만, 부사장과 임원들은 사장님의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없었다. 필자는 다수의 디자인을 하

며 이것이야말로 시장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고 확신 차 이야기하였지만 사장님은 반대하고 임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 회사를 뒤로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필자는 씁쓸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서 계약을 중간에 종료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어쩔 수 없었다.

그 후 2 년이 지났다. 필자는 주기적으로 백화점 등에 가서 최근의 출시한 상품을 보는데 필자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쩐 필자가 한 디자인하고 거의 같은 것이 나와 있었다. 그것도 세계에서 칼로 170 년 역사로 가장 브랜드 파워와 매출이 큰 독일의 쯔윙링(일명 쌍둥이 칼)였다. '핸드폰에 애플이 있다면 칼에는 쯔윙링이 있다' 할 정도로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



(1731 년 설립된 쯔윙링 (ZWILLING) 는 일명 쌍둥이 칼로 불려지는데 세계적인 브랜드로 주방용 칼과 냄비 등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이다.)



(중국 상하이 모 백화점 ZWILLING 매장에 필자 디자인과 유사한 칼집이 전시되어 있다.)

필자는 사진을 찍은 후, 다시 예전의 회사를 찾아갔다. 사장과 미팅을 신청하였지만, 사장은 다른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새롭게 부임한 부사장이 필자의 이야길 한참 듣고 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자료를 요청하며 사장님이 돌아오면 보고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락은 아직도 없다.

필자는 이 디자인을 프윙링(일명 쌍둥이 칼) 회사에서 스스로 하였는지 아니면 대만 회사 사장님 쪽에서 제공하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디자인 특허권을 필자가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만 사장님과 주변의 임원들이 안목이 있어 이 디자인을 채택하였다면 이 회사는 대박이 났을 것이다. 안목이 없는 그런 사장님을 만나니 디자이너나 디자인이 고생을 한다.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중국경제, 12 월은 7 개월 연속 감속(Bloomberg, 2018.12.28)



중국경제는 12 월도 감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데이터가 발표했다. 무역전쟁과 국내내수저조, 생산자 인플라 둔화의 영향으로 7 개월 연속으로 성장이 둔해진 양상.

12 월의 기업신뢰도와 시장センチメント에 관한 지수를 집계한 블룸버그 이코노믹의 지표는, 정부의 경기 자극적인 어프로치와 미국과의 무역전쟁 「정전」이 아직 성장궤도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曲天石 이코노미스트는, 세계무역의 불확실성과 약한 경기감이 계속해 주요한 제약요인이 되는 가운데, 중국의 활동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에서 읽을 수 있다고 지적, 「상품시장에 보여지는 최근의 상장변동이 제조업섹터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19 년의 이른 시기에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시한다」고 커멘트했다.

영국은행 스탠다드차타드가 집계한 중국중소기업의 경기감을 나타내는 12 월 지수는 54.7 로 전월과 변동없었다. 이 은행에서 이번 조사를 담당하는 申嵐 이코노미스트 (북경근무) 는 하부 흔들림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전망은 어둡다고 12 월 24 일의 리포트에서 지적했으며, 「12 월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수출수요가 약해져, 내수 또한 저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2.'중국미디어의 10 대뉴스', 수입박람회 등(nnA, 2018.12.28)



중국국영신화사 통신계의 경제참고보는 27 일, 동지를 중심으로 중국의 주요 12 미디어가 합동으로 고른 「2018 년 국내 10 대 경제뉴스」를 발표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과, 수입촉진을 위한 전시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첫 개최등이 라인업 되었다.

순위를 매기지 않고, 뉴스의 발생순으로 ◇해남성의 자유무역항화를 향한 움직임 ◇MSC I 신흥주지수의 A 주 조합 ◇「농촌진흥전략계획 (2018 ~ 22 년)」의 공표 ◇국세와 지방세의 통합, 세제개혁 가속 ◇전국국유기업개혁 좌담회 개최, 혼합소유제 개혁추진 ◇장생생물 과거의 위법한 약진생산과 그것에 수반되는 상장폐지

처분 ◇민영기업좌담회에 의한 민영경제발전을 위한 사기고양 ◇제 1 회 중국수입박람회 상해 개최성공 ◇미중무역마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개혁개방 40 주년 축하식전 개최와 개혁개방 심화를 향한 새로운 시도 - 10 건이 선정되었다.

선고는 경제참고보가 주제. 동지 이외 미디어로는, 중국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 국영라디오국의 중앙인민광보전국 (CNR), 증권전문지 중국증권보, 인터넷미디어 澎湃新聞등이 참가했다.

3.ASEAN 각국 중국 멀어지기 가속, 2019 년을 내다보다!【동남아시아】

(제펜인대프, 2018.12.28)



【정리】

- 중국「일대일로」에 의한 인플라의 「거점화」에 경계감 높아짐.
- ASEAN 각국에서 중국 멀어지기가 더욱 가속.
-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계 (RCEP) 」의 타결에 기대감.

2019 년은 동남아시아제국연합 (ASEAN) 에 있어서 커다란 비약을 향해 각 국가가 각각의 나라에서 견고하고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고, 선거등의 정치적인 변화에 착실하게 대응하며, 기반을 충분히 다져 안정을 지향하는 1 년이 될 듯하다.

■ 4 월의 대통령선거에 주목, 인도네시아

세계제4위의 인구로 ASEAN의 맹주이기도 한 인도네시아는 4월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맞는다. 현직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쟁코위도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4년간을 인플라 정비와 물가안정, 치안대책 등에서의 실적을 배경으로 유리한 선거전을 전개하고 있어,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화 루피아도 2018년 후반에 한때 불안정했지만, 현재는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 안정을 회복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투자, 기업진출도 견조하게 추이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의 대항마는 1998년에 붕괴한 스하르트 장기독재정권에 연결되는 전 엘리트 군인으로 수많은 물의를 빚으면서도 도시부 부유층과 급진파 이슬람교도들의 현상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는 형태로 지지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어, 예측불허 사태를 포함해 4월까지 요주의가 될 것이다.

초점은 세계최대의 이슬람 교도인구 표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며, 종교적인 알력과 불관용이 금후 사회 문제화 될 염려도 있다.

■ 민정이관에 겨우 발을 내디딘 태국

비슷하게 총선거를 2월 24일에 맞는 것이 ASEAN의 대국 태국이다. 2014년의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푸라윳트 수상은 재 3 민정이관을 표명, 총선거 실시를 시사해 왔지만, 이제 겨우 총선거실시로 민정이관이 실현하게 되었다.

단지, 푸라윳트 수상은 총선거의 정권계속을 표명, 군정지지의 정당「국민국가 의 당」으로 총선거에 임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사실상의 「망명생활」을 보내고 있는 탁신 전수상 지지인 「태국공헌당」과 도시부 부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유층이 지지하는 「민주당」에 의한 3 당의 격전이 예상된다.

태국의 정치경제동향은 진출해 있는 일본계기업도 많은 관계로, 일본의 관심도 높고 눈을 땔수 없다.

■ 국내치안대책이 급무인 필리핀

ASEAN 의 이단아로 시끄러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범죄자 살인을 포함한 초법규적 조치로 국제적인 비난을 맞으면서도 그런대로 마약범죄 억제효과를 불러,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을 배경으로 남부 민다나오섬에서의 계엄령을 2019 년말까지 재연장하는 것에 성공하고, 경제저조와 남지나해에서의 중국 패권에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 자세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국내정치대책으로 바꿔치기 해서 돌파하려 하고 있다.

2019 년은 이러한 것으로 국내의 테러, 반정부활동등 사회불안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그것을 계기로 반 두테루테 기운이 확대될 것도 생각할 수 있다.

■ 마하틸 수상으로 안정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마하틸 수상에 의한 자국이익우선, 전정권의 부정체질적발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답하는 정치로, 안정기를 맞고 있다. 중국에 확실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베테랑 정치가는 ASEAN 에 있어서도 얻기 힘든 존재로, 그 존재감은 말레이시아 국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평가되고 있다.

■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이 공통과제

동남아시아의 관계밀착화로 스스로 제창한 「一帶一路」정책을 밀어나가고 싶은 중국에게 ASEAN 는 동남아시아와 남서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거액의 경제원조와 맞바꿔치기로 항만과 도로, 교량, 공공교통등의 인프라, 가공공장조업등으로 「거점화」를 차례차례로 꾀하고 있다.

그러나 2018 년에는 ASEAN 각국도, 중국의 투자만이 아니라 건설에 관한 노하우, 부품조달, 자재, 노동력까지 모든 것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과 거액의 채무변제에 의한 「경제점령」에 경계감이 높아지고, 중국 멀어지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본다」경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마하틸 수상은 중국이 관계하는 대형프로젝트의 중지와 수정을 내걸고, 인도네시아도 새로운 고속철도계획으로 중국보다 일본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미얀마도 중국의 원조에 의한 항만개발이 「군사기지화」될 우려를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류속에 2019 년은, 중국의 경제지원으로 독재적 정치지배를 계속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같은 공산당으로 연결되어 근본은 공통기반인 베트남을 제외한 ASEAN 각국에서 중국 멀어지기가 더욱 가속해 갈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통신기업체 「화웨이」에서 보여지는 듯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고립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보다 현저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 2019 년 체결을 목표로 하는 RCEP

ASEAN 은 현재,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등과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계 (RCEP)」의 타결을 향해 교섭중으로, 2019 년에도 타결이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RCEP 가 타결되면 참가 16 개국으로 세계인구의 48%에 해당하는 35 억명, 세계무역액의 29% (9 조달러) 라는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어, ASEAN 의 경제를 상회하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4. 일중평화우호조약 40년 일중관계의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다(AERAdot, 2018.12.28)



2018년 10월, 아베신조 수상은, 일본의 수상으로서 약 7년만에 중국을 단독방문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일중평화우호조약을 맺은 40년이라는 시점에 맞춘 방중이다. 지금까지의 일중관계를 되돌아보자.

매월 화제가 된 뉴스를 어린이들을 위해 쉽게 해설해 주는, 초등학생용 월간 뉴스메거진『주니어 아에라』에 게재된 기사를 소개한다.

일본은 류조호 사건을 발단으로 한 만주사변 이후,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1945년 8월 14일, 미국, 영국, 중국의 3개국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제안한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15일, 쇼와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에 전쟁의 종료를 전했다.

전후, 중국에서는, 중단되었던 내전이 재개되어, 장개석 이끄는 국민정부와 모택동이 지도하는 공산당이 싸웠다. 49년, 승리한 공산당의 모택동이 주석이 되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성립시켰다. 패한 장개석의 국민정부는 대만으로 피했다.

인구 세계 1위인 중국이 사회주의 나라가 됨으로, 자본주의 미국은 커다란 쇼크를 받았다. 당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제국과, 소련(현재의 러시아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제국등과 나뉘어 격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냉전). 미국은 중국과 적대하며, 대만과 동맹을 강화했다.

한편, 일본은,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군에 점령되었지만, 51년,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조인하고, 52년, 독립을 회복했다. 그리고 미국의 지시에 따라 대만과 일화평화조약을 맺었다.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대만이다」라고 해, 중국은 적대하게 되었다.

■ 팬더는 일중우호의 심벌

그런데 71년 7월, 사회주의 방향성등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던 중국과 소련의 틈을 노리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돌연, 중국방문을 발표. 지금까지의 미국에 추종해서 중국과 적대해 온 일본은, 사다리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같은해 10월에는 대만 대신에 중국이 UN에 가맹.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뀌었다. 다음 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이어, 일본의 타나카카구에이 수상도 중국을 방문. 일중공동성명에 조인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 1개월후에는 중국에서 일중우호의 심벌로 두마리 팬더가 보내져왔다. 또,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81년부터 일본정부에 의한 중국잔류고아의 육친찾기가 시작되었다.

78년에는, 일중평화우호조약이 맺어져, 양국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79년에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기술과 자금을 원조하는 정부개발원조(ODA)가 시작되었다.

■ 서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국교정상화 후, 무역과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히 되어, 무역총액은 과거 45년간 약 11억달러에서 약 3천억달러로 증가했다. 일본에 있어서 중국은 최대의 무역상대국. 중국에 있어서도 일본은 미국에 이어 무역상대국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도 중국인이 가장 많아, 연간 736만(2017년), 1일 약 2만명이 내일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 약 256만명(17년)의 약 30%는 중국인. 경제면에서는 서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어 있다.

한편, 정치면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남경사건(남경대학살)의 희생자수 등, 역사인식의 차이와, 첨각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등을 양국은 안고 있다.

최근 중국은 크게 변화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이라고 불려, 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는, 2010 년, 일본을 재치고 세계 2 위가 되었다. 일본과 중국은, 지원하는, 받는 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바뀌었다. ODA 도 18 년도로 종료한다.

이번의 아베수상의 중국방문이, 경제면을 한층 발전시켜, 정치면에서의 식어버린 일중관계를 개선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해설 / 분쿄대학 생해학습센터 강사 · 하야카와아키오)

< 일중관계사 >

1931 년 / 유조호사건을 계기로, 만주사변이 시작되다. 일본군, 奉天 (현재의 瀋陽) 을 공격

1932 년 / 일본, 만주국 건설

1945 년 / 종전

1949 년 /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

1951 년 / 일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조인

1952 년 / 일본, 대만과 일화평화조약을 맺음

1971 년 / 중국이 UN 가맹

1972 년 2 월 /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9 월 / 일본의 타나카카쿠에이 수상이 중국을 방문. 일중공동성명에 조인.국료정상화

11 월 / 중국에서 보내진 팬더가 도쿄, 우에노동물원에서 일반공개

1978 년 / 일중평화우호조약에 조인

1979 년 / 일본, 중국에 정부개발원조 (ODA) 를 개시

1981 년 / 중국잔류고아가 육친찾기를 위해 내일

2010 년 / 중국의 GDP 가 일본을 재치고 세계 2 위가 되다

2018 년 / 일본 수상이 약 7 년만에 중국방문

【키워드 : 만주사변】

유조호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만주 (중국동북부) 로의 침략전쟁. 1931 년, 奉天 (현재의 瀋陽) 교외의 유조호에서, 일본의 군대 (관동군) 이 철도노선을 폭파하고, 중국군의 한 짓이라고 하며 만주를 침략하고, 점령했다. 다음 32 년, 만주국을 건국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키워드 : 일중공동성명】

1972 년, 일본의 타나카카쿠에이 수장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은래 수장과 사이에 조인된 국교회복성명. 일본측이 과거의 전쟁책임을 통감하고,깊이 반성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로서 승인했다. 이것으로 대만과는 단교했지만, 민간에서의 교류, 무역은 이루어지고 있다.

【키워드 : 중국잔류고아】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동북부 (구만주) 에 소련침공에 의한 혼란으로, 이 지역에 남겨져, 고아가 된 일본인 어린이들.

【키워드 : 남경사건 (남경대학살) 】

1937 년,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했을 때, 다수의 포로와 일반시민을 살해한 사건. 사망자수는, 중국의 공식 견해로 30 만, 일본에서는 수만에서 20 만까지로 견해가 나뉜다. 사건은 없었다라고 발언하는 일본의 공인도 있어 양국관계의 불씨가 되어 있다.

【키워드 : 침각제도】

오끼나와현 이시가끼섬 북쪽에 있는 동지나해에 떠있는 섬들. 일본의 영토였지만, 부근의 해저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존재하는 것이 추정된 이후로,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5.얼굴인식으로 「티켓레스」관광버스 등장... 중국 · 상해시(Forbes, 2018.12.28)



중국 상해시가, 인공지능 (AI) 의 도입과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 하다.

12 월 중순에는, 얼굴인식기능과 무선통역서비스를 이용한 도시관광버스의 테스트운행을 개시했다. 관광객유치와 인바운드시책의 차별화에, AI 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얼굴인식기능이 탑재된 도시관광버스는, 百度 (Baidu) 와 현지 여행사가 협력해 전개하고 있는 것. AI 가 승객의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티켓레스」로 원만하게 승차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

또한, 통역서비스는 인력으로 대응한다고 함.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아랍어등을 커버하려고 한다. 어느것이든, AI 에 의한 기계통역, 관광안내, 콘텐츠 제공등이 실장될것인가 주목하고 싶다. 얼굴인식 AI가 탑재된 관광버스는, 2019년 1 월부터 10 대로 정식으로 운행개시가 되고, 연말에는 20 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최근, 상해시는 「AI 어플리케이션 실천 인프라 공간」의 오픈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AI 어플리케이션을 집적 · 전시하기 위한 전용공간이 될 예정이다. 동 공간에서는, 학교, 병원, 공장, 가정, 교통, 행정, 방위, 금융등, 스마트시티건설과 비즈니스와 관련된 AI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전시된다.

바꿔 말하자면, 대규모의 「AI 쇼케이스」라고 말한 것이지만, 상해시로서는 실수요를 민감하게 감지해, 시내의 AI 산업의 성장스피드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AI 가 탑재된 스마트로봇, 하드웨어, 자율주행관련 서비스의 창출을 시가 후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씨를 키우는 것에도 주력할 자세이다.

일본에서는, 2025 년에 개최가 결정된 오사까만국박람회의 주요전시 테마에 하나로서 인공지능가 꼽히고 있다. 「최첨단기술의 실험장」이라는 컨셉은, 방문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임팩트를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도시간의 PR 전, 또는 산업력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수년간 생길 상해시를 비롯한 각국각도시의 움직임을 놓칠수 없게 된다.

각도시가 내거는 AI 관련시책과 활용사례의 확충을 상회하는 전시가 실현된다면, 일본의 새로운 가능성을 어필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KIC 중국 NEWS

1.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한국 4 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주요

기관 방문(2018.12.28)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은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4곳과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한국전력공사, 본투글로벌, 플래텀 등 주요 기관을 방문했다.



<(좌측부터)KIC 중국 센터장 이상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주영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이병우, 나주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황광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한종호>

인천, 충남, 나주빛가람 등 3 개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각 방문해(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는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센터장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추후 공동 협력을 논의 및 추진했다. 아울러 KIC 중국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중국 및 세계 진출을 돕는 발판이자 구심점으로서 국내 창업의 허브이자 핵심기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것을 약속했다.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 이정희, 본투글로벌 센터장 김종갑, 플래텀 대표 조상래>

이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전력공사, 본투글로벌, 플래텀 등 창업지원 주요 기관에 방문, 각 기관과 KIC 중국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한 기초 발판을 다졌다.